

영어교육, 61권 2호 2006년 여름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어휘학습전략 사용연구

이 성 원 (경상대학교)

민 미 옥 (경상대학교)

Lee, Seongwon & Min, Miok. (2006). A study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use of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English Teaching*, 61(2), 115-137.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se of learning strategies and belief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Grades 1 and 3) when learning English vocabulary. The instrument used was based on Jun-Eon Park's (2001), which was itself developed after Schmitt's (1997). The results indicate that, to find the meaning of a new word, participants relied heavily on using bilingual dictionaries, guessing from textual context, and analyzing affixes and roots, while the strategies they used most often to consolidate the new word included saying it aloud, studying its spelling, and paraphrasing its meaning. Although "interacting with native speakers" and "using English language media" were not adopted as active means of consolidating the meaning of words, the respondents nevertheless evaluated them as very supportive in solidifying their fragile L2 word knowledge. Finally, higher-proficiency students were found to use a wider range of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than lower-proficiency students.

I. 서론

최근 한국의 영어교육은 문법 중심의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의사 소통을 중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한국의 학습자들은 접하기에 용이한 읽기와 듣기를 통해서 의사 소통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읽기와 듣기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필수적인 어휘 학습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전반적인 의사 소통을 위한 어휘 이해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강조되어 왔는데, Lewis(1993)는 어휘 습득이 제 2언어를 학습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Richards(2000)는 다른 언어적인 지식이나 문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어휘 능력이 없으면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Wilkins(1972) 또한 문법적 오류는 의미 전달을 완전히 차단시키지는 않으나 어휘가 없으면 온전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어휘 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또한 효과적인 어휘학

습에 필요한 학습전략에 대한 연구와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의사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영어 교수법이 지향되고 있는 최근의 현장에서도 어휘 교수는 소수의 현장을 제외하고는 전통적 접근법을 따르고 있으며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등 획일적인 어휘 지도 방식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어휘 학습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어휘 실력 향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 스스로 어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나 어휘학습전략에 관한 지도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어휘학습전략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전략의 사용과 학업성취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어휘교수·학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어휘학습전략과 도움이 된다고 해석하는 어휘학습전략은 무엇인가?
2.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어휘학습전략과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어휘학습전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학업성취도와 어휘학습전략의 사용과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전략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습전략 선행연구

이효용(1994)은 Oxford(1989)의 SILL를 이용하여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학습전략을 조사·분석한 결과, 외국어 학습기간이나 성별, 외국어 성취도 수준, 그리고 대학생의 전공 등이 학습전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업 성취도와 학습전략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상위 그룹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전략을 하위 그룹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가르쳤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현장 위주의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영민(1995)도 Oxford의 SILL을 이용하여 EFL과 ESL상황에서 성인들의 학습전략을 조사하였으며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의 향상과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전략들을 인지하고, 교육 환경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어 교과과정, 자료, 그리고 교수 방법은 언어 수업 시간에 발견되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수용할 수 있

도록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Youngsook Jung(1997)은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모의고사지를 이용하여 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를 조사하였으며 정의적 전략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이는 한국 학생이 외국어 학습에 대해 가지는 높은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 해석한다. 또한 학습전략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끼치므로 정규 교과과정에서 학습전략을 가르쳐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들도 학습전략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remner(1999)는 Oxford의 SILL을 사용하여 홍콩의 교사들이 사용하는 학습전략을 연구하였는데, 홍콩의 교사들은 보상 전략과 상위인지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정의적 전략과 사회적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한 영어 성취도와 학습전략간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함께 학습전략이 영어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Sungwoo Kang(1999)은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아시아 학생들의 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전략 요소가 언어 수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고, 상위인지전략 요소는 인지전략 요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언어기술 요소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박숙희(2000)는Oxford의 SILL을 이용하여 중학생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영역별 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에서 그는 다양한 영어 학습전략의 변수들이 영어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전략 중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전략은 다른 사람이 영어로 말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 배운 것을 관련시키기, 영어로 대화를 시작해 보기 등의 전략 등도 학업성취도와 깊은 관련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언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 학습전략의 교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전략 사용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Namkyu Park(2001)은 ESL 학습자들의 학습전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성공적인 학습자는 그렇지 못한 학습자보다 학습전략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고 사용방법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전략 훈련을 하고자 할 때 학습자들의 전략에 대한 인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언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전략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성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들의 학습전략을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교사는 학습자들의 학습전략 사용이 용이하도록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는 학습전략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알맞은 학습전략을

발견하고 지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2. 어휘학습책략의 선행연구

Schmitt(1997)는 학습자가 새로운 단어의 뜻을 처음으로 접하고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는 의미발견책략과 알게 된 새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는 기억강화책략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책략에 Oxford(1990)의 분류를 더했다. 본 연구에서는 Schmitt(1997)의 분류를 따랐다.

Schmitt의 분류에 따르면 의미발견책략에는 결정책략과 사회적책략이 있으며 결정책략은 학습자가 목표어의 구조적 지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동족어로부터 의미를 알아내고, 문맥으로부터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며, 혹은 참고 서적을 사용하여 의미를 알아내는 책략들을 포함하고 사회적책략은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책략을 의미한다.

일단 새 단어를 접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난 후에는 그 단어를 기억하도록 돕는 기억강화책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책략, 기억책략, 인지적책략, 상위 인지적책략 등이 이 책략에 속한다. 사회적책략에는 그룹활동, 외국인과의 교제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의 기억책략에는 상상이나 그룹화를 통해 새 단어를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연관시키는 책략들이 속한다. 인지적책략은 어휘학습을 위해 반복과 같은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함을 의미하며 반복하여 쓰기, 반복하여 말하기 등 많은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책략이다. 인지책략의 구체적인 예로는 단어리스트 사용과 플래시 카드 사용, 노트 필기하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전반적인 학습과정을 총괄하면서 자신의 학습을 조 작하고 통제하는 책략이 상위인지적책략이며 영어관련 매체를 활용하여 단어 공부하기, 자신의 어휘를 직접 테스트하기, 단어를 연습하기, 모르는 단어를 지나치거나 단어공부를 반복하기 등이 상위인지적책략의 대표적인 예다.

어휘는 언어 학습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 어휘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휘학습책략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Ahmed(1989)는 성공적인 어휘학습자들은 다양한 책략을 사용하고, 학습의 진행과정을 인식할 수 있으며, 문맥에서 어휘를 추론하고, 새로 배운 어휘와 전에 학습한 어휘 간의 의미상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은 책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새로운 어휘를 기존의 어휘와 연관 지우지 못한다고 한다.

Gu와 Johnson(1996)이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휘학습책략과 책략과 어휘의 용량, 그리고 언어유창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문맥에서 추리, 사전이용, 노트필기, 그리고 새로이 학습한 단어의 활용은 어휘 테스트와 언어유창성 테스트 둘 다에서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였고 효과적인 책략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로운 단어를 시각적으로 반복하기는 효과적이지 못한 책략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대학생들은 다른 반복적인 책략보다 구두로 반복하는 책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an(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Fan(1999)은 광동어를 하는 홍콩인을 대상으로 어휘책략의 사용빈도, 유용성 인식,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책략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학습자들이 어휘를 접하게 되는 빈도수에 따라 특히 유용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어휘학습책략에 관해서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동시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책략은 문맥 속에서 추론하기였으며 반면에 학생들이 가장 적게 사용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책략은 핵심단어기법이였다. 또 홍콩인들은 연상기법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Schmitt, 1997)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Gu & and Johnson, 199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Fan은 어휘가 유창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많은 정보를 사용하고, 추론을 하며, 사전이용과 더불어 다른 어휘학습책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Schmitt(1997)는 일본 학생들이 사용하는 어휘학습책략과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어휘학습책략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일본 학생들은 사전이용책략과 반복책략을 다른 책략보다 더 많이 사용했고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반면 일본 학생들은 의미지도와 같은 책략은 다른 책략보다 덜 사용했고, 또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다 더 복잡하고 의미에 초점을 둔 책략을 사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Schmitt는 또한 많은 학습자들이 어휘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언어학 부분보다 어휘학습에 더 많은 책략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암기, 노트 필기, 반복 등과 같은 기계적책략을 추측하기, 상상하기, 그리고 핵심단어 책략과 같은 심층 처리과정을 포함하는 책략보다 더 자주 사용하며, 성공적인 학습자는 다양한 어휘학습책략을 사용하고 자신들의 어휘 학습 전반을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Schmitt(1997)가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Jun-Eon Park(2001)은 한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많이 사용하는 어휘학습책략과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어휘학습책략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학생들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때에 사전이용에 가장 많이 의존하며 문맥으로부터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사전을 이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어휘를 교수할 때 학생들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억강화책략 사용에 있어서 한국학생들은 단어의 철자와 소리 공부, 새 단어를 크게 읽고 쓰기를 반복, 단어를 반복적으로 공부, 새로운 단어 의미를 영상화하는 것 등과 같은 책략을 선호하였다.

김익환(2001)은 학습책략을 효과적으로 교수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언어능력 수준, 학습 스타일, 동기, 학습자의 연령, 학습자의 태도와

수용 자세, 과업활동, 교재 등과 같은 변이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기존의 학습전략을 너무 신봉해서는 안 되며 교실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사용과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보완되고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한다. 즉,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전략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듯 위의 선행연구들은 어휘학습전략 사용이 어휘학습에 매우 중요하며 성공적인 언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어휘학습전략과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전략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비교대상의 경우 동일한 학교과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실제 사용하는 어휘학습전략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어휘학습전략연구와 함께, 자신이 실제 사용하는 어휘학습전략에 대한 도움여부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어휘학습전략에 관한 도움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으로 동일한 학교과정 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C시의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3개 반과 3학년 3개 반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처음 설문조사는 각 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최종 분석은 설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설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한 고등학교 1학년 57명, 고등학교 3학년 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어 성취도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 대상 학생들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의 평균에 따라 전체 116명의 학생들을 상(39명), 중(38명), 하(39명)의 세 그룹으로 나눈 후 중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제외한 상, 하 그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성취도에 따른 전략 사용을 분석하였다.

2. 설문지

본 연구는 일본 학생을 대상으로 어휘학습활동을 연구한 Schmitt의 ‘A taxonomy of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를 근거로 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춰서 설문 항목을 작성한 Jun-Eon Park(2001)의 설문지를 따랐다. Jun-Eon Park(2001)은 한국어와 영어의 어원이 같은 어휘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발견전략인 ‘Check for L1 cognate’을 설문지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기억강화전략 중 한국의 교사나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전략들은 삭제시켰다. 따

라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Schmitt의 연구에서는 58가지의 항목이 설문에 사용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Jun-Eon Park(2001)과 동일한 설문을 택하여 의미발견책략13항목과 기억강화책략 31항목을 설문항목으로 사용하였다.

의미발견책략은 결정책략(1~8)과 사회적책략(9~13)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억강화책략은 사회적책략(1,2), 기억책략(3~19), 인지적책략(20~27), 상위인지책략(28~31)의 다섯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사용과 도움을 표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그 문항의 책략을 사용하면 사용한다고 표시하고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고 표시하도록 하였다.

3.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어휘학습책략과 유용성을 알아보았으며, 설문조사는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영어성적을 본 연구의 변수 중 하나인 학업성취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인 2005년 7월 셋째 주에 연구대상 학교 담당영어교사의 관리하에 수업 중에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담당영어교사에게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의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전달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 자신이 실제 어휘를 학습할 때 사용하는 책략을 진솔하게 응답하여 줄 것을 요구하도록 했다.

IV.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1. 고등학생 어휘학습책략 사용과 유용성

1) 의미발견책략의 사용과 유용성

표 1은 고등학생들이 새 단어를 처음 발견하였을 때 사용하는 어휘학습책략인 의미발견책략의 사용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책략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여준다.

표 1에 따르면 학생들은 영한사전사용하기, 학급친구에게 질문하기, 글 속에서 단어의미 추측하기, 품사분석하기, 단어목록 찾기 순서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넷은 결정책략, 하나는 사회적책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un-Eon Park(2001)이 초·중·고·대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연구 결과 중에서 고등학생에 대한 결과와 같았다. 하지만 사용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영한사전 사용하기(86.7%), 글 속에서 단어의미 추측하기(78%), 학급친구에게 질문하기(69%), 단어목록 찾기(48%), 품사분석하기(35.3%) 등에서 약간의 차

이를 보였다. 두 연구 결과에서 모두 영한사전 사용 항목이 사용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영한사전 사용에 익숙해 있고 또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어휘학습책략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표 1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의미발견책략과 도움인식 정도(%)

의미발견책략	사용	도움
1. 새 영어단어의 품사를 분석한다.	38.8	68.8
2. 새 영어단어의 접두사, 접미사, 어근을 분석한다.	23.3	81.5
결 3. 새 영어단어와 관련 있는 사진(그림)이나 동작을 분석한다.	26.7	64.4
정 4. 새 영어단어가 들어있는 글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추측한다.	61.2	69.0
책 5. 영한사전을 찾아본다.	85.3	65.7
략 6. 영영사전을 찾아본다.	18.1	71.3
7. 단어목록을 찾아본다.	35.3	36.5
8. 그림 단어카드를 사용한다.	5.1	66.7
사 9. 담당교사에게 새 영어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9.3	64.8
회 10. 담당교사에게 새 영어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13.8	81.2
적 11. 담당교사에게 새 영어단어가 포함된 영어문장을 알려달라고 한다.	6.0	43.3
책 12. 학급 친구들에게 새 영어단어의 뜻을 물어본다.	69.0	57.5
략 13. 단체학습활동을 통해서 새 영어단어의 뜻을 파악한다.	11.2	38.4

본 연구에서는 다른 책략들에 비해 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책략의 사용빈도수가 다소 낮았으며 교사에게 질문을 하기보다는 영한사전을 찾는든지 학급친구에게 질문을 하는 등 혼자서 해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명자(2004)의 결과와 달리 중학생들이 학급친구에게 질문하기(89.7%), 담당교사에게 새 단어 뜻 질문하기(41%)와 같은 사회적책략을 많이 사용한 것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 결정책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연구 결과였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고등학생들이 품사분석책략(38.8%)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중학생들은 품사분석책략(16.7%)을 다른 책략에 비해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중학생들이 품사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는데(표 2)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제공할 책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표 2에서 담당교사에게 새 영어단어가 포함된 영어문장을 알려달라고 하는 항목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사전이용보다 좀 더 쉽고 정확하게 문맥에 맞는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

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표 2
사용하지는 않지만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발견 책략(%)

의미발견 책략 (사용하지 않지만 도움은 된다)	%
1. 새 영어단어의 품사를 분석한다.	24.1
2. 새 영어단어의 접두사, 접미사, 어근을 분석한다.	32.8
3. 새 영어단어와 관련 있는 사진(그림)이나 동작을 분석한다.	35.3
4. 새 영어단어가 들어있는 글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추측한다.	20.7
5. 영한사전을 찾아본다.	7.8
6. 영영사전을 찾아본다.	35.3
7. 단어목록을 찾아본다.	14.7
8. 그림 단어카드를 사용한다.	32.8
9. 담당교사에게 새 영어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3.3
10. 담당교사에게 새 영어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41.4
11. 담당교사에게 새 영어단어가 포함된 영어문장을 알려달라고 한다.	42.2
12. 학급 친구들에게 새 영어단어의 뜻을 물어본다.	8.6
13. 단체학습활동을 통해서 새 영어단어의 뜻을 파악한다.	31.9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새 영어단어와 관련 있는 사진(그림)이나 동작을 분석한다는 항목이다. 고등학생들은 입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단시간에 많은 영어단어의 뜻을 파악하여 실제 입시에 도움이 되는 책략을 사용함을 선호할 것이므로 사진(그림)이나 동작을 분석하는 것과 같이 시간이 요구되는 책략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경험에 의해서 이 항목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기억강화책략의 사용과 유용성

학생들이 새로운 단어를 접하고 난 후 단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고자 사용하는 책략인 기억강화책략들을 살펴보면, 소리내어 말하기, 철자익히기, 단어의 발음익히기, 우리말로 풀이해보기, 반복쓰기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Jun-Eon Park(2001)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였다. 반면에 여러 명이 함께 학습, 그림카드 작성 단어학습, 물건에 영어이름표 붙이기 책략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 또한 Jun-Eon Park(2001)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어휘학습을 할 때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 보다는 개별학습을 선호함을 알 수 있으며 그림카드 작성 단어학습, 물건에 영어이름표 붙이기 책략은 학생들이 현 수능입시제도에서 부적합한 책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Jun-Eon Park(2001)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를 지나쳐버리는 책략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현 대학입시제도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최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에서는 주어진 영어지문을 빠른 시간 내에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높은 득점을 위하여 중요하므로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암기하려 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3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억강화책략과 도움인식 정도 (%)

기억강화책략	사용	도움
1. 여러 명이 함께 영어단어의 의미를 연습한다.	6.0	43.3
2. 미국(영국)인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과 교체한다.	10.3	83.5
3. 영어단어의 뜻이 들어있는 그림을 가지고 단어를 학습한다.	8.6	69.8
4. 영어단어의 뜻을 머리 속에 그려본다.	60.3	67.2
5. 영어단어를 개인의 경험에 연결하여 학습한다.	42.2	73.5
6. 영어단어를 동의어, 반의어와 함께 학습한다.	37.1	74.4
7. 몇몇 영어단어들을 집단으로 묶어 학습한다.	18.9	68.3
8. 영어 문장 속에서 새 영어단어를 사용해본다.	28.5	75.8
9. 영어단어의 철자를 익힌다.	75.0	58.7
10. 영어단어의 발음을 익힌다.	74.1	76.8
11. 영어단어를 소리내어 말해본다.	80.1	75.3
12. 영어단어의 형태를 머리 속에 그려본다.	52.5	67.2
13. 영어단어의 첫 철자에 밑줄을 그으면서 학습한다.	13.8	50.0
14.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영어단어를 학습한다.	27.6	71.7
15. 영어단어의 접두사, 접미사, 어근 등을 기억하며 학습한다.	16.3	79.1
16. 단어의 품사를 기억하며 학습한다.	23.3	70.4
17. 영어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풀이해본다.	74.2	65.1
18. 관용어구(속어)의 단어들을 함께 학습한다.	34.4	70.1
19. 신체적 행동을 사용하여 영어단어를 학습한다.	19.8	69.7
20. 영어단어를 말로 반복하며 학습한다.	67.3	67.9
21. 영어단어를 반복해서 써보면서 학습한다.	74.1	67.5
22. 영어단어 목록을 작성하여 단어를 학습한다.	39.6	71.7
23. 영어단어 그림카드를 작성하여 단어를 학습한다.	0.9	100.0
24. 영어교사의 설명을 받아 적으며 단어를 학습한다.	25.9	53.3
25. 영어교재의 어휘란을 활용하여 단어를 학습한다.	34.5	47.5
26. 물건들에 영어 이름표를 붙여보며 단어를 학습한다.	0.9	0.0
27. 단어장을 만들어 영어단어들을 기록하며 단어를 학습한다.	48.3	60.7
28. 노래, 영화, 뉴스 등 영어매체들을 활용하여 영어단어를 학습한다.	27.6	78.3
29. 자신의 영어단어실력을 스스로 테스트해본다.	32.7	73.7
30. 모르는 영어단어를 지나쳐버린다.	25.0	6.8
31. 영어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한다.	60.3	82.9

표 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기억강화책략에서 실제 사용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항목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미국(영국)인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과 교체한다는 항목이다. 이는 학생들이 외국인들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본 연구가 이루어진 도시의 크기가 작기 때문

이라 볼 수도 있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현행 대학수능입시의 외국어 영역 문제가 말하기와 듣기보다는 읽기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은 독해실력 향상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외국인과의 교제를 통한 의사소통향상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제 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중심이라고는 하나 아직 고등학교 영어수업은 현행 수능입시제도의 영향으로 문법이나 독해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사용 전략은 입시에 유용한 전략들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만 학생들은 외국인과의 교제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어휘학습전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표 4

사용하지 않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기억강화전략(%)

기억강화전략	%
1. 여러 명이 함께 영어단어의 의미를 연습한다.	30.2
2. 미국(영국)인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과 교제한다.	62.9
3. 영어단어의 뜻이 들어있는 그림을 가지고 단어를 학습한다.	33.6
4. 영어단어의 뜻을 머리 속에 그려본다.	14.7
5. 영어단어를 개인의 경험에 연결하여 학습한다.	23.3
6. 영어단어를 동의어, 반의어와 함께 학습한다.	34.5
7. 몇몇 영어단어들을 집단으로 묶어 학습한다.	19.8
8. 영어 문장 속에서 새 영어단어를 사용해본다.	23.3
9. 영어단어의 철자를 익힌다.	3.4
10. 영어단어의 발음을 익힌다.	10.3
11. 영어단어를 소리내어 말해본다.	8.6
12. 영어단어의 형태를 머리 속에 그려본다.	9.5
13. 영어단어의 첫 철자에 밑줄을 그으면서 학습한다.	6.9
14.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영어단어를 학습한다.	23.3
15. 영어단어의 접두사, 접미사, 어근 등을 기억하며 학습한다.	21.6
16. 단어의 품사를 기억하며 학습한다.	19.0
17. 영어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풀이해본다.	8.6
18. 관용어구(숙어)의 단어들을 함께 학습한다.	22.4
19. 신체적 행동을 사용하여 영어단어를 학습한다.	22.4
20. 영어단어를 말로 반복하며 학습한다.	16.4
21. 영어단어를 반복해서 써보면서 학습한다.	9.5
22. 영어단어 목록을 작성하여 단어를 학습한다.	19.0
23. 영어단어 그림카드를 작성하여 단어를 학습한다.	26.7
24. 영어교사의 설명을 받아 적으며 단어를 학습한다.	14.7
25. 영어교재의 어휘란을 활용하여 단어를 학습한다.	12.9
26. 물건장에 영어 이름표를 붙여보며 단어를 학습한다.	36.2
27. 단어장을 만들어 영어단어들을 기록하며 단어를 학습한다.	20.7
28. 노래, 영화, 뉴스 등 영어매체들을 활용하여 영어단어를 학습한다.	44.8
29. 자신의 영어단어실력을 스스로 테스트해본다.	34.5
30. 모르는 영어단어를 지나쳐버린다.	0.9
31. 영어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한다.	29.3

표 4에서 두 번째로 높은 퍼센트를 보인 책략은 노래, 영화, 뉴스 등 영어매체를 활용하여 영어단어를 학습한다는 항목으로, 이 책략의 경우도 외국인과의 교체 항목과 마찬가지로 현행 입시제도의 영향이라 생각된다. 즉, 학생들이 매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매체를 활용하여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기란 힘든 실정이며 매체를 접한다 하더라도 수능시험에 출제확률이 높은 EBS 교육방송만을 거의 확일적으로 접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 볼 수 있다.

2. 고등학생 1학년, 3학년 책략비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이는 고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중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책략과 많이 비슷할 것이고, 고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 대학입시를 눈앞에 둔 상황이라 어휘학습책략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 의미발견책략의 사용과 유용성

표 5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영한사전 사용, 학급친구에게 질문하기, 글 속에서 단어의 의미 추측, 담당교사에게 새 단어 뜻 질문, 품사분석 순서로 많이 사용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영한사전 사용, 학급친구에게 질문하기, 글 속에게 단어의 의미 추측, 품사분석, 단어목록 찾기 순으로 많이 사용하며, 두 집단이 사용하는 의미발견책략의 순위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간의 사용 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 몇 가지를 표5에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은 둘 다 영한사전이용 책략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사용빈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보다 영한사전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보다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입시제도에 보다 가까이 접해 있고, 영한사전이용 책략은 어휘학습책략에 관한 자세한 지식이 없이도 손쉽게 빠른 시간에 뜻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담당교사에게 영어단어의 뜻 질문하기 책략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은 43.9%의 높은 사용 빈도를 나타낸 반면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15.3%의 낮은 사용빈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학교에서 사용하던 책략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스스로 어휘를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사용빈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또 하나의 항목은 담당교사에게 새 영어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무엇인지 질문하기인데, 이 책략도 앞서 살펴본 책략과 마찬가지로

표 5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의미발견전략사용과 도움의 인식 정도(%)

의미발견전략	고 1		고 3	
	사용	도움됨	사용	도움됨
1. 새 영어단어의 품사를 분석한다.	38.6	77.2	39.0	60.8
2. 새 영어단어의 접두사, 접미사, 어근을 분석한다.	22.8	84.6	23.7	78.5
3. 새 영어단어와 관련 있는 사진(그림)이나 동작을 분석한다.	31.6	61.1	22.1	69.2
4. 새 영어단어가 들어있는 글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추측한다.	61.4	59.9	61.1	77.7
5. 영한 사전을 찾아본다. *	78.9	66.7	91.5	64.8
6. 영영 사전을 찾아본다. +	21.1	58.3	15.3	88.9
7. 단어목록을 찾아본다.	33.3	31.5	37.3	41.0
8. 그림 단어카드를 사용한다. +	8.8	60.2	1.7	3.9
9. 담당교사에게 새 영어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	43.8	68.0	15.3	55.6
10. 담당교사에게 새 영어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	21.0	83.3	6.8	75.0
11. 담당교사에게 새 영어단어가 포함된 영어문장을 알려달라고 한다. *+	10.5	33.3	1.7	52.5
12. 학급 친구들에게 새 영어단어의 뜻을 물어본다.	66.7	63.1	71.2	52.4
13. 단체학습활동을 통해서 새 영어단어의 뜻을 파악한다. +	15.8	44.3	6.8	25.0

* 고1과 고3의 의미발견전략 사용 정도의 차이가 교차분석결과 유의미한 항목 (p<0.1)
+ 고1과 고3의 의미발견전략 도움인식 정도의 차이가 교차분석결과 유의미한 항목 (p<0.1)

교사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당교사에게 새 단어가 포함된 영어문장 질문하기 전략도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어휘 학습전략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으며, 몇 개의 항목에서 고등학생 1학년과 3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영사전이용 전략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1학년보다 영영사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영영사전을 실제로 사용하는 고등학교 3학년은 15.3%으로 영영사전사용이 유용하다고 생각은 하나, 영영사전 사용이 영한사전사용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명확한 의미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단어카드 사용하기 전략은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에서 모두 낮게 나타

났으며 3학년의 경우 더욱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단어카드 사용전략은 실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가 부족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서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출현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담당교사에게 새 단어의 뜻 질문하기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은 대부분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고등학교 3학년은 1학년에 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담당교사에게 새 단어의 뜻 질문하기의 도움여부에 대해 고등학교 3학년은 낮은 빈도를 나타냈으나, 담당교사에게 새 단어가 포함된 영어문장 질문하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의 도움 인식과 반대되는 결과로 고등학교 3학년은 어휘의 단순한 의미보다는 어휘가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문맥에 따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자 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단체학습활동을 통한 의미과약전략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체 학습을 통해 영어의미를 파악하기 보다는 개인학습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2) 기억강화전략의 사용과 유용성

기억강화전략사용의 학년간 비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영어단어의 철자익히기, 영어단어의 발음익히기, 영어단어 소리내어 말하기, 우리말로 풀이하기, 영어단어 반복해서 쓰기 등 순서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등학교 3학년은 영어단어 소리내어 말하기, 우리말로 풀이하기, 영어단어 반복해서 쓰기, 영어단어 계속적 반복하기, 영어 철자익히기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의 기억강화 전략의 사용에 대한 차이는 9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6 참고). 여러 명이 함께 영어단어의 의미를 연습하는 전략은 고등학교 3학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단체학습활동을 통해 영어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확고하게 하는 전략을 잘 모르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현 고등학교 영어수업에서 단체 활동을 통해서 어휘를 학습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영어단어를 집단으로 묶어서 학습하는 전략의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이 1학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한 영어단어를 총체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며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 배우게 되는 새로운 단어를 접목시키고 집단으로 묶어서 학습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영어단어 철자익히기, 영어단어 발음익히기, 영어단어 형태 머릿속에 그리기, 그리고 영어단어의 품사 기억하기 등은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모두 전략사용에 있어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보다 영어단어의 철자와 발음익히는 전략을 덜 사용한 반면, 영어단어의 형태를 머

릿속에 그려보는 전략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어본문을 읽고 해석할 때에 그 단어의 정확한 철자와 발음을 익히기보다는 의미전달에 중점을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기억강화전략의 사용과 도움의 인식 정도(%)

기억강화전략	고 1		고 3	
	사용	도움	사용	도움
1. 여러 명이 함께 영어단어의 의미를 연습한다. *	10.5	33.3	1.7	5.9
2. 미국(영국)인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과 교체한다. +	14.1	87.2	6.8	75.0
3. 영어단어의 뜻이 들어있는 그림을 가지고 단어를 학습한다.	10.5	66.7	6.8	75.0
4. 영어단어의 뜻을 머리 속에 그려본다.	57.9	57.5	62.8	75.6
5. 영어단어를 개인의 경험에 연결하여 학습한다.	36.9	66.7	47.5	78.5
6. 영어단어를 동의어, 반의어와 함께 학습한다. +	38.6	59.1	35.6	90.4
7. 몇몇 영어단어들을 집단으로 묶어 학습한다. *	10.6	50.0	27.1	74.9
8. 영어 문장 속에서 새 영어단어를 사용해본다.	35.1	70.1	22	84.5
9. 영어단어의 철자를 익힌다. *+	84.2	68.8	66.1	46.1
10. 영어단어의 발음을 익힌다. *	82.4	78.8	66.1	74.4
11. 영어단어를 소리내어 말해본다.	82.5	74.4	77.9	76.1
12. 영어단어의 형태를 머리 속에 그려본다. *+	40.4	60.9	64.4	71.1
13. 영어단어의 첫 철자에 밑줄을 그으면서 학습한다. +	19.3	54.4	8.5	40.0
14.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영어단어를 학습한다.	28.1	75.1	27.1	68.6
15. 영어단어의 접두사, 접미사, 어근 등을 기억하며 학습한다.	14.0	75.0	18.7	81.8
16. 단어의 품사를 기억하며 학습한다. *+	31.6	72.2	15.3	66.7
17. 영어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풀이해본다.	79.0	68.9	69.5	61.0
18. 관용어구(속어)의 단어들을 함께 학습한다. +	40.4	60.9	28.8	82.3
19. 신체적 행동을 사용하여 영어단어를 학습한다.	22.8	61.4	17.0	80.0
20. 영어단어를 말로 반복하며 학습한다. *	75.5	67.4	59.3	68.6
21. 영어단어를 반복해서 써보면서 학습한다.	78.9	66.7	69.5	68.3
22. 영어단어 목록을 작성하여 단어를 학습한다.	36.8	71.5	42.4	71.9
23. 영어단어 그림카드를 작성하여 단어를 학습한다.	29.9	6.0	0.0	0.0
24. 영어교사의 설명을 받아 적으며 단어를 학습한다.	21.1	58.3	30.6	50.0
25. 영어교재의 어휘란을 활용하여 단어를 학습한다.	28.0	37.5	40.6	54.2
26. 물건들에 영어 이름표를 붙여보며 단어를 학습한다.	36.9	4.9	0.0	0.0
27. 단어장을 만들어 영어단어들을 기록하며 단어를 학습한다. *	38.6	59.1	57.6	61.8
28. 노래, 영화, 뉴스 등 영어매체들을 활용하여 영어단어를 학습한다. +	33.4	73.7	22.0	84.5
29. 자신의 영어단어실력을 스스로 테스트해본다. *	38.6	77.2	27.1	68.6
30. 모르는 영어단어를 지나쳐버린다.	35.1	5.1	15.3	11.1
31. 영어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한다. +	52.6	70.0	67.8	92.5

*고1과 고3의 기억강화전략 사용 정도의 차이가 교차분석결과 유의미한 항목 (p<0.1)
+고1과 고3의 기억강화전략 도움인식 정도의 차이가 교차분석결과 유의미한 항목 (p<0.1)

단어장을 만들어 영어단어를 기록하며 단어학습하기 전략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더 빈번히 사용하는데, 이것은 중요단어들을 따로 정리하여 암기함으로써 독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의 기억강화전략 비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전략들 중 동의어 반의어를 함께 학습하기와 관용어구(숙어)의 단어들을 함께 학습하기 전략에 있어 고등학교 3학년들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서는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들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영어매체를 활용하여 영어단어 학습하기 전략은 고등학교 1학년이 3학년 보다 더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지만, 도움여부에 관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1학년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은 영어매체를 활용하여 따로 영어단어를 학습할 시간적인 여유가 고등학교 1학년에 비해 없기 때문에 사용빈도는 낮으나 자신들이 흥미로워하는 주제에 관한 영어매체를 접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3. 영어성취도와 어휘학습전략과의 관계

1) 영어성취도와 의미발견전략사용의 관계

영어성취도와 어휘학습전략사용 간의 관계는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상·하 그룹의 학생들 모두 영한사전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학급친구에게 질문하기, 문맥 속에서 단어의미 추측하기, 단어목록 찾기 등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휘학습전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위그룹의 학생들은 영한사전 사용하기를 가장 많이 선호했고 하위그룹 학생들은 학급친구에게 질문하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새 단어와 관련된 사진 동작 분석하기를 하위그룹학생들의 경우 38.4%의 사용빈도를 보인 반면, 상위그룹 학생들은 23.1%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영영사전 사용하기 전략의 경우 상위그룹의 학생들은 23.1%로 하위그룹의 10.3%보다 높은 사용빈도수를 보였다. 이는 하위그룹의 학생들은 영영사전 사용보다 영한사전 사용이 더 쉽고 용이하기 때문에 영한사전사용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7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어휘학습전략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위그룹의 학생들 경우 교사에게 비슷한 단어 질문하기 항목에서 실제 사용은 15.4%으로 낮지만 66.9%의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하위그룹 학생들이 교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즉각적으로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교사로부터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영사전사용 항목에서는 대부분의 상위그룹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하위그룹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이는 책략의 사용과 동일한 결과로 하위그룹 학생들이 영영사전에 대하여 가지는 부담과 거부감을 볼 수 있다

표 7
성취도에 따른 의미발견책략사용과 도움의 인식 정도 (%)

의미발견	상 (성취도)		하 (성취도)	
	사용	도움됨	사용	도움됨
1. 새 영어단어의 품사를 분석한다.	46.2	66.7	30.7	58.3
2. 새 영어단어의 접두사, 접미사, 어근을 분석한다.	33.3	76.9	18.0	85.6
3. 새 영어단어와 관련 있는 사진(그림)이나 동작을 분석한다.	23.1	66.7	38.4	53.4
4. 새 영어단어가 들어있는 글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추측한다.	66.6	73.1	51.3	60.0
5. 영한사전을 찾아본다.	89.7	54.3	74.4	69.0
6. 영영사전을 찾아본다. +	25.6	69.9	10.2	50.0
7. 단어목록을 찾아본다.	38.4	33.3	35.9	42.9
8. 그림 단어카드를 사용한다. *	0	0	12.8	60.2
9. 담당교사에게 새 영어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0.5	62.4	35.8	50.0
10. 담당교사에게 새 영어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10.3	74.8	15.4	66.9
11. 담당교사에게 새 영어단어가 포함된 영어문장을 알려달라고 한다.	2.6	0	7.7	33.8
12. 학급 친구들에게 새 영어단어의 뜻을 물어본다.	61.6	50.0	79.5	51.6
13. 단체학습활동을 통해서 새 영어단어의 뜻을 파악한다.	5.2	50.0	12.9	20.2

* 성취도 상하집단간의 의미발견책략 사용 차이가 교차분석결과 유의미한 항목 (p<.1)

+ 성취도 상하집단간의 의미발견책략 도움인식 차이가 교차분석결과 유의미한 항목 (p<.1)

의미발견책략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상위그룹의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미발견책략은 영한사전사용이었으며 하위그룹의 고등학생은 친구에게 질문하기 책략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2) 영어성취도와 기억강화책략사용의 관계

표 8에서 제시된 것처럼, 상·하 그룹의 학생들은 모두 철자익히기, 영어단어의 발음익히기, 소리내어 말하기, 반복해서 쓰기 책략을 많이 사용한다.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책략들 외에 상위그룹의 학생들은 지속적인 반복책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69.2%), 하위그룹의 학생들은 상위그룹

학생들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이것은 상위그룹이 하위그룹보다 어휘학습을 위해 많은 복습과 연습을 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표 8
성취도에 따른 기억강화책략사용과 도움의 인식 정도 (%)

기억강화책략	상(성취도)		하(성취도)	
	사용	도움	사용	도움
1. 여러 명이 함께 영어단어의 의미를 연습한다.	2.6	100.0	7.7	33.8
2. 미국(영국)인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과 교제한다.	12.8	60.2	69.2	7.4
3. 영어단어의 뜻이 들어있는 그림을 가지고 단어를 학습한다.	5.2	50.0	12.9	79.8
4. 영어단어의 뜻을 머리 속에 그려본다.	59.0	73.9	56.4	50.0
5. 영어단어를 개인의 경험에 연결하여 학습한다.	43.6	82.3	46.2	50.0
6. 영어단어를 동의어, 반의어와 함께 학습한다.+	38.5	80.0	28.2	63.5
7. 몇몇 영어단어들을 집단으로 묶어 학습한다.	25.6	69.9	18.0	42.8
8. 영어 문장 속에서 새 영어단어를 사용해본다.	30.8	75.0	28.2	72.7
9. 영어단어의 철자를 익힌다.	76.9	43.3	74.3	55.2
10. 영어단어의 발음을 익힌다.	76.9	76.7	74.4	69.0
11. 영어단어를 소리내어 말해본다.	82.0	75.0	84.6	69.7
12. 영어단어의 형태를 머리 속에 그려본다.	59.0	60.8	43.6	70.6
13. 영어단어의 첫 철자에 밑줄을 그으면서 학습한다.	12.8	60.2	18.0	42.8
14.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영어단어를 학습한다.*	15.4	50.0	35.9	64.3
15. 영어단어의 접두사, 접미사, 어근 등을 기억하며 학습한다.	25.6	69.9	12.9	79.8
16. 단어의 품사를 기억하며 학습한다.	30.8	66.6	20.5	62.4
17. 영어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풀이해본다.	79.5	48.4	64.1	76.0
18. 관용어구(속어)의 단어들을 함께 학습한다.*+	46.1	72.2	25.6	50.0
19. 신체적 행동을 사용하여 영어단어를 학습한다.	18.0	57.2	18.0	57.2
20. 영어단어를 말로 반복하며 학습한다.	66.7	53.8	69.2	70.4
21. 영어단어를 반복해서 써보면서 학습한다.	74.4	62.1	71.8	57.1
22. 영어단어 목록을 작성하여 단어를 학습한다.	48.7	68.4	30.8	75.0
23. 영어단어 그림카드를 작성하여 단어를 학습한다.	0	0	2.6	100.0
24. 영어교사의 설명을 받아 적으며 단어를 학습한다.	30.7	58.3	17.9	28.5
25. 영어교재의 어휘란을 활용하여 단어를 학습한다.*	56.4	31.7	20.6	50.0
26. 물건들에 영어 이름표를 붙여보며 단어를 학습한다.+	0	0	2.6	0.0
27. 단어장을 만들어 영어단어들을 기록하며 단어를 학습한다.*	64.1	56.0	41.0	56.3
28. 노래, 영화, 뉴스 등 영어매체들을 활용하여 영어단어를 학습한다.+	25.7	89.9	23.1	55.4
29. 자신의 영어단어실력을 스스로 테스트해본다.	30.8	66.6	30.8	66.6
30. 모르는 영어단어를 지나쳐버린다.	15.4	16.9	30.8	8.4
31. 영어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한다.*+	69.2	88.9	41.0	68.8

* 성취도 상하집단간의 기억강화책략 사용 차이가 교차분석결과 유의미한 항목 ($p < .1$)

+ 성취도 상하집단간의 기억강화책략 도움인식 차이가 교차분석결과 유의미한 항목 ($p < .1$)

영어성취도에 따른 전략 사용의 유의미한 차이를 몇 개의 항목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림카드 사용 전략은 상위그룹의 학생들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 하위그룹의 학생들은 12.8%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그룹의 학생들이 이 전략을 유치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핵심단어 중심 영어단어학습전략의 경우는 하위그룹의 학생들이 상위그룹의 학생들보다 사용빈도가 더 높지만, 관용어구(숙어) 함께 학습, 영어교재의 어휘란 활용학습, 단어장 만들어 단어학습, 영어단어 계속적 반복학습 등의 전략은 상위그룹의 학생들이 더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다. 여기서 상위그룹의 학생들은 하위그룹의 학생들보다 어휘학습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행하며 더 많은 반복을 통해 어휘를 기억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억강화전략의 도움에 대한 상·하그룹 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동의어·반의어 함께 학습, 관용어구(사용)함께 학습, 영어매체 활용학습, 영어단어 계속적·반복적 학습 등의 경우 상위그룹의 학생들이 하위그룹의 학생들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 반면, 하위그룹의 학생들은 상위그룹의 학생들보다 물건에 이름표 붙여 학습하기 전략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 이는 의미발견전략에서 그림단어카드를 상위그룹에 비해 사용빈도가 높은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하위그룹 학생들은 단순한 반복이나 기계적 암기보다는 시각적인 자료를 통한 어휘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Goodman(1985)은 많은 학자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휘습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많은 외국어학습 과정들이 어휘를 잘 배울 수 있도록 학습자를 도와주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한국의 실제 영어교육현장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방법적인 제시나 연구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학교 영어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영어어휘학습전략의 종류를 살펴보고, 또 그들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영어 어휘학습전략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의 영어 어휘학습 전략 사용과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전략을 조사하고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와 어휘학습전략의 사용과 도움인식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 고등학교 영어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미발견전략은 영한사전이용 전략이며 학습자들은 대체로 이 전략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필요한 필수적인 어휘습득을 위해 이용 가능하고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영한사전이용 책략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교사들은 영한사전사용을 소홀히 생각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의 행동적인 특성을 수용하고 영한사전을 사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새로운 어휘를 접하고 난 후 사용하게 되는 기억강화책략의 경우에는 소리내어 말하기, 철자익히기, 단어의 발음익히기, 우리말로 풀이, 그리고 반복쓰기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짧은 시간에 별다른 어휘학습책략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기계적인 반복학습으로 단어를 기억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책략이 사용하는 정도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지 여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휘학습책략의 사용에 대한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들 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은 영한사전사용 책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담당교사에게 단어 뜻 질문하기, 담당교사에게 비슷한 단어 질문하기, 담당교사에게 새롭게 배운 단어가 포함된 영어문장 질문하기 등은 고등학교 1학년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영어어휘 학습시 교사에게 의존했던 성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입시를 눈앞에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영한사전이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 상호작용은 인지적으로 또한 정의적으로도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게도 선생님들과의 상호작용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책략 소개와 교사들의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발견책략에서는 영영사전 찾기, 그림 단어카드 사용, 담당교사에게 새 영어단어가 포함된 영어문장 질문하기 등의 책략에서 학년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 1학년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고등학교 1학년은 담당교사에게 영어단어 뜻 질문하기, 단체 학습 활동을 통한 영어단어의 뜻 파악 등의 책략에서 3학년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억강화책략의 사용과 도움인식 정도에 있어서도 몇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용에서는 영어단어를 집단으로 묶어 학습하기, 영어단어 형태그리기, 단어장 만들어 학습하기 등의 항목이었다. 도움인식 정도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교제, 동의어와 반의어 함께 학습, 영어단어 계속적 반복책략 등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에 따른 책략 사용의 편중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책략에 적합한 과업을 선택하여 책략 훈련을 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방법을 몰라 책략의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되도록 다양한 책략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어휘학습책략의 사용에 대한 분석에서는 그림 단어카드사

용 전략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그룹은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반해, 하위그룹의 학생들은 12.8%가 사용하였다. 도움 인식의 경우는 의미발견전략 중 영영사전이용 전략이 성취도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상위그룹 학생은 71.8%로 하위그룹의 38.5%보다 두 배 이상으로 도움의 정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영영 사전은 영한 사전보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의 연구는 영영 사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함과 동시에 영어사전을 사용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행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 본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기억강화전략의 사용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있었는데, 상위그룹의 학생들은 하위그룹에 비해 관용어구(숙어)함께 학습, 영어교재어휘란 활용, 단어장 만들어 학습, 영어단어 계속적 반복 등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기억강화전략에서 동의어와 반의어 함께 학습, 영어매체활용학습, 영어단어 계속적 반복전략 등은 상위그룹이 하위그룹의 학생들보다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에 하위그룹 학생들은 핵심단어중심 영어단어 학습전략을 상위그룹 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며, 물건에 이름 붙여 단어학습하기 전략을 상위그룹에 비해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전략 사용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 그룹 학습자들의 영어 능숙도가 좀 더 효과적인 전략사용으로 이어지는지를 밝히면 전략 교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어휘학습전략의 사용과 도움성 인식은 학년과 학업성취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알고 있는 전략과 사용하는 전략이 다르며 또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전략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경험과 추측에 따라 설명하였으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을 인터뷰하거나 요인을 조사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통하여 좀 더 자세하고 치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전략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그 이유가 전략 사용 방법을 몰라서인지 아니면 시험 등의 영향인지 밝히고 각 원인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에 대한 집중이 문법과 어휘 교수의 소홀함을 가져왔다는 것에는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학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으며 영어학습자들의 어휘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개발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어휘습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어휘 학습을 위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어휘학습전략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의 효과적인 현장 접목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특성 및 학습자 개개인의 상황과 학

습 목적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휘학습에 적합한 교과과정의 개발이 함께 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 김영민. (1995). Korean ESL learner's learning styles and learning strategies. *부산영어교육*, 4, 161-178.
- 김익환. (2001). 영어 어휘학습책략의 유형과 사용. *영어교육연구*, 22, 1-24.
- 박속희. (2000). 중학생의 영어 학습방략 유형과 학업 성취도 분석. *영어교육연구*, 12(1), 315-336.
- 이명자. (2004). *중학생 영어 어휘학습책략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이효용. (1994). 외국어 학습책략에 관한 연구: 중.고.대학생을 중심으로. *영어교육*, 48, 51-99.
- Ahmed, M. O. (1989).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In P. Meara (Ed.), *British studies in applied linguistics: Vol. 4. Beyond words* (pp. 3-14). London: British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Center for language Teaching.
- Bremner, M. (1999).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nd language proficienc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in Hong Kong. In M. Wittroc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3rd ed., pp. 315-327). New York: Macmillan.
- Fan, M. Y. (1999). An Investigation into the beliefs and strategies of Hong Kong students in the learning of English. *Educational Journal*, 27(2), 65-82.
- Goodman, K. (1985). Unity in reading. In H. Singer & R. Ruddell (Eds.), *The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3rd ed., pp. 813-840).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Gu, Y., & Johnson, R. K. (1996).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and language learning outcomes. *Language Learning*, 46(4), 643-679.
- Jung, Youngsook. (1997). The Interrelationship among motivation, learning strategies, and achievement of Korean students learning English. *English Teaching*, 52(2), 3-37.
- Kang, Sungwoo. (1999).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ESL learning strategies and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of Asian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5, 1-25.
- Lewis, M. (1993). *The lexical approach*. Lond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Oxford, R. L. (1989). Use of language strategies: A synthesis of studies with implications for strategy training. *System*, 17, 1-13.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 York: Newbury House.
- Park, Jun-Eon. (2001). Korean EFL learner's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English*

- Teaching*, 56(4), 3-30.
- Park, Namkyu. (2001). ESL learner's perceptions of learning strategies. *English Teaching*, 56(3), 27-44.
- Richards, J. C. (2000). Series editor's preface. In N. Schmitt (Ed.), *Vocabulary in language teaching* (pp. xi-x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mitt, N. (1997).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In N. Schmitt & M. McCarthy (Eds.), *Vocabulary: Description, acquisition, and pedagogy* (pp. 199-22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kins, D. A. (1972). *Linguistics and language learning*. London: Edward Arnold.
- Weinstein, C., & Mayer, E. (1986). The teaching of learning strategies. In M. Wittroc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pp. 317-327). New York: Macmillan.

교육단계(applicable levels): 중등 교육(secondary education)

주제어(key words): 언어학습책략(learning strategy), 어휘학습책략(vocabulary learning strategy)

이성원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Tel: (055) 751-5619/H.P.:016-9460-8450
Fax: (055) 751-5611
Email: seongwon@gsnu.ac.kr

민미옥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Tel: (055)753-3041/H.P. 010-5543-3615
Email: ladymaogi@hanmail.net

Received in February, 2006

Reviewed in March, 2006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y, 2006